현대소설연구(제88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2.12.88.49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모순성에 대한 심리적 고찰

김 미 라*

요약

본고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로 이해되어온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 속 여성 인물들의 '봉건성'과 '의존성'을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가적 도덕 가치 체계를 통해 재고한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충분한 여건과 역량'을 갖춘 '중산층 지식인 여성'으로 파악되는 작중 여성 인물들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출된 후, 해당 작품에 대한 비평 및 연구에서 꾸준히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 인물들에게 주어진 삶과 그로 인해 그들에게 발생한 내외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기실 이들의 정체성에서 '여성'이란 젠더를 소거한다.

여성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선택을 종용하는 개인적 도덕과, 남성 지배 사회의 '여성다움'에 가반을 둔 여성적 도덕을 동시에 달성할 것을 요구받는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여성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순적 태도는 그 두 도덕성을 오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절망과 '교활함', 수치와 '무모함' 등으로 포착되는 이들의 모순성은 남성 지배 구조의 사회에서 '모욕'당하지 않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으로서의 생존 방편이자, 여성 억압적인 도덕적 기준과 가치에 균열을 내는 기제로 기능한다.

기존의 독해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여성 인물들이 보이는 모순성을 서사의 한계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독해에서 배제된 젠더를 다시 기입하여 읽어낼 때, 이들의 모순성은 남성 지배 사회에서 구축된 여성적 도덕과 개인적 도덕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발생되는 필연적 사건이자 두 도덕적 경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계에 균열을 내는 움직임으로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로써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여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이해되며, 페미니즘 소설이란 명명에 적합한 의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페미니즘, 1990년대, 여성문학, 신데렐라 콤플렉스, 가부장제, 의존성, 봉건성, 모순성, 여성적 도덕.

목차

1. 서론
2.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대한 재고와 여성적 도덕성
3. ‘모욕’당한 여성의 생존 방편으로서의 모순성
 3.1. 여성을 다시 한 번 절망시키는 ‘교활함’
 3.2. 여성에게 수치를 불러오는 ‘무모함’
4. ‘함께’ 가기 위한 여성의 홀로서기
5. 결론

1. 서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이하 『무소의 뿔』)[1]는 발간과 함께 영화, 연극, 뮤지컬로 만들어지며, 작가 공지영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또한 작가 자신의 말[2]처럼 그녀에게 ‘페미니즘 작가’라는 수식을 부여한 텍스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격적으

1)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제4판, 해냄, 1993. (이하 본문 인용 시에는 면수만 표기한다.)

2) “나에게 페미니스트라는 딱지를 붙여준 것도 이 책이었다. 한동안 그것이 젊은 나를 규정하는 사슬 같아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지만 나는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으나, 그것을 변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 여성들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한에서는 말이다.” (공지영, 「제2판 작가의 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제4판, 해냄, 1993, 414면.)

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한 것은 기실 매우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3]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명명이 무색하게, 『무소의 뿔』은 오랫동안 '실패'한 여성서사로 지칭되어왔기 때문이다. 발간 직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무소의 뿔』에 대한 해석은 남녀를 지나치게 이분법적 대립항으로 그려내고 있다거나, '여성 해방'을 주창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적 현실만을 제기한 채 이야기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끝내 그것을 성공적으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이 주를 이루었다. 말하자면 『무소의 뿔』은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을 내세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학'의 좋은 예시로 고려되지는 않았다.[4]

당대 비평들[5]이 『무소의 뿔』에서 특히 문제삼은 지점은 바로 '신데렐

3) 김미지, 「『82년생 김지영』(2016)과 겹쳐 읽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 - 페미니즘과 소설의 전략」, 『현대소설연구』 제85호, 현대소설학회, 2022, 5-35면; 문예지, 「30대 페미니스트 서사에서 세대의 교차와 분화 읽기 –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5집, 한국현대문학회, 2021, 221-257면; 양혜원, 「여성 경험의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학』 제44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313-348면; 최가은, 「90년대 여성문학의 곤란한 '대중성' - 공지영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43-374면.

4) 최가은, 앞의 글, 351면.

5) 본고에서 살펴본 평론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 글들이 모두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소의 뿔』에서 기혼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여성 개인의 심리 상태, 혹은 여성에게 내재된 관습적 특성에 근원한 것으로 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공유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 하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제출된 것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본다.

박철화, 「여성성의 글쓰기, 대화와 성숙으로 - 공지영, 은희경, 신경숙의 경우」, 『작가세계』 제42호, 작가세계, 1999, 103-118면; 서은경, 「공지영론 - 스러진 역사의 꿈, 그 속에서 피어난 삶의 진실」, 『돈암어문학』 제13호, 돈암어문학회, 2000, 167-184면; 연용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의 의식 고찰」, 『順天鄕語文論集』 제7권, 順天鄕語文學硏究會, 2001, 247-269면; 이경덕, 「여성문제의 인식과 소설적 형상화 - 안재성, 공지영, 이경자, 양귀자의 최근 소설들」, 『실천문학』 제33호, 실천문학사, 1993, 365-387면; 임진영, 「80년대를 보는 90년대 여성 작가의 눈 – 공선옥과 공지영」, 『실천문학』 제41호, 실천문학사, 1996, 233-250면; 정영자, 「90년대 여성소설의 특성 연구 – 양귀자, 공지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15권, 비평문학회, 2001, 333-398면.

라 콤플렉스'[6]에 갇힌 여성 인물들이다. 다수의 비평이 『무소의 뿔』 속 남성 화자들의 발화, 즉 서사의 중후반부에 혜완의 애인인 선우가 혜완의 태도를 "여성해방의 깃발을 들고 오는 남성"을 기다리는 "신데렐라"에 비유[7]하는 대목과 임신한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지르다 혜완에게 들킨 장 감독이 '여성의 봉건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빌려, 여성 인물들을 '의존적' 또는 '봉건적'이라 진단했다. 이렇게 파악된 작중 여성 인물들의 태도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내재된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정확히 포개지면서 하나의 짝을 이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자기 역량의 증진과 의지의 강화를 통해 이를 스스로 타개해나가야 한다는 해석을 유도했다.[8]

그러나 이러한 당대의 관점은 『무소의 뿔』이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드러내 보인 여성의 현실을 다시금 개인의 사적 문제로 치환시킨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 작품의 여성 인물들을 논하는 데 가장 먼저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불러온 이경덕의 글을 되짚어보며 그 문제점을 좀 더 살펴보겠다. 이경덕은 1990년대 초에 발표된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분석

6)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콜레트 다울링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남성에게 의탁하여 안정적인 삶을 꾀하려는 여성의 의존적 심리 상태를 일컫는다. 다울링은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타인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인적 또는 심리적 의존상태"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여성의 자립 의욕과 자신에게 '알맞는'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 욕망 간의 갈등에서 비롯하며, 애증과 같이 상호 대립되는 감정의 병존상태를 야기한다. (콜레트 다울링, 이호민 역,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2002, 31-38면 참고.)

7) "... 넌 여자들의 아픈 삶에 대해 나에게 누누이 역설했고 우리들의 몸에 밴 봉건성에 대해 성토했지만 넌 한 가지는 간과했어. 그건 바로 그런 점이야. 그렇게 불완전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애쓰지 않으면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 넌 그걸 잊었었어. 넌 남자가 홀연히 여성해방의 깃발을 들고서 나타나주기를 바랐던 거야. 그게 너의 함정이었어. 그건 신데렐라의 왕자님이 유리 구두 대신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깃발을 쭈뼛거리며 들까 말까 망설였을 때 너는 그 깃발을 들고 망설이는 나의 손을 같이 잡아주는 대신 날 비난하기 시작했지. 너 역시 왕자님을 기다렸던 거야. 니가 경멸해 마지않던 그 신데렐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지." (357-358)

8) 대표적인 예로 정영자의 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정영자는 『무소의 뿔』이 드러내고 있는 여성 문제를 일곱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 세 가지로 '참 자아의 발견', '자유의지의 방향 설정', 자아의 힘 증진' 등을 제시한다. (정영자, 앞의 글, 369면.)

하며, 『무소의 뿔』을 다루는 장에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주제화"라는 소제목을 부여한다. 이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한 그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사회 자체의 인정 구조의 결함"에서 찾으면서도,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문제의 해결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제출한다.[9] 즉 사회구조적 문제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강고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이를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상 여성들에게 덧씌워진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10] 이와 같은 결론은 '페미니즘 소설'에게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결말'이 기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무소의 뿔』이 마주한 이러한 딜레마는 "여성문학의 부각"을 내세운 90년대 문학장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반페미니즘적'이라 혹평 받았던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1992)을 분석한 허주영은, 당대 페미니즘 문학이 '현실성'과 '새로운 여성성'이라는 상반된 기준을 동시에 달성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한다. "완벽한 페미니즘 문학"으로서의 90년대의 여성 서사는 "현실에 발 딛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여성상으로 현재의 여자들을 임파워링하고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상상력을 제공하는, 즉 문학적 가치를 획득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변화

9) 이경덕, 위의 글, 376-377면.

10) 김평과 류은영은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사랑, 권력, 부, 명예라는 기본적인 욕망들이 절묘하게 얽"혀 있는 '사회 정치적 로맨스 담론'이라 규정하고, 그 본질이 신데렐라 서사 속 로맨스가 은폐 혹은 억압되어 부재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신데렐라 서사는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권력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이야기이다. 이에 따르면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권력 구조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터져 나온 구조적 문제이다. 김평과 류은영은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남성 지배 사회에 의해 강요된 콤플렉스"로서 "남성 지배 사회가 구조적으로 정형화한 여성의 초상"이라 재정의한다. (김평 · 류은영, 「신데렐라 서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신데렐라 콤플렉스까지」, 『프랑스학연구』 제75호, 프랑스학회, 2016, 88면과 112면 참고.)

를 추동하는" 것이어야 했다.[11] 이러한 허주영의 분석은 비단 양귀자의 소설에 국한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라쁠륨』의 창간호(1996)가 '여성과 문학'을 부제로 삼고 기획한 「한국 문학에 있어서의 여성문학」 특집에서, 송명희는 "여성의 억압 경험의 고발과 폭로의 저항 시학에서 벗어나 억압을 극복한 여성상의 제시, 양성 통합의 인간상과 대안 문화 제시"를 앞으로의 여성 문학이 지닌 과제로 제출한다.[12] 이 글에서 특정 작가나 작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는 『무소의 뿔』에 대한 주된 비판으로 여성이 극복하지 못한 의존성과 그러한 이유로 끝내 홀로서지 못한 채 마무리된 미완의 결말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억압적 현실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상을 창출해내는 여성상은 '페미니즘'이란 기표 아래에 90년대 문학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페미니즘 문학을 마치 특정한 양식과 형상으로만 기입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읽어내게끔 하는 것으로, 이로써 문학장 안에서 페미니즘이 일종의 조건부로 기능하게 만든다.

그런데 『무소의 뿔』의 경우 여성의 현실을 '전망 있게' 그려내라거나, "특정한 여성, 완성된 여성을 가시성의 장 내에 재현하라는 요구"가 비평계뿐만 아니라 당대 독자들로부터도 꾸준히 제출되었다.[13] 작가 공지영은 그러나 독자들의 항의 속에서도 "진실"을 감추는 "환상"과 타협하지 않았다.[14] 최가은은 이러한 독자와 작가 간의 대치가 "소설이 낭만성에 사로

11) 허주영, 「1990년대 페미니즘의 대중화, 그 직전의 풍경: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1992)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8권, 민족문학사학회, 2022, 183면.

12) 송명희, 「한국 문학과 페미니즘」, 『라쁠륨』 제1권 1호, 문화공간, 1996, 354면.

13) 최가은, 앞의 글, 366면.

14)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미혼 여성들이—예전의 나까지 포함하여—아직도 여성의 일과 결혼이라는 이 케케묵은 주제에 대하여 혹시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이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그들이 진실을 알아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거나, 그도 아니면 많이 늦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지영,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상처 없는 영혼』, 푸른숲, 1996, 242-243면.)

잡혀 무지한 여성들의 현실 인식을 각성하는 이른바 '여성 계몽주의 소설'로 매끈하게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작가가 "진실"이라 칭한 '현실'은 '계몽'과 같은 '페미니즘 문학'의 기능으로서의 '매끈함'에 반(反)하여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이 드러내는 여성들의 삶과 그 삶이 드러내는 여성들의 모순성이 만들어내는 '울퉁불퉁함' 속에 자리한다. 이 '울퉁불퉁함'은 미완성이나 실패가 아니라, 여성 서사를 구성하는 도드라짐과 움푹 파임의 흐름을 면밀히 감각하는 새로운 독해의 가능성이며, 이것이 오늘날 『무소의 뿔』에 대한 다시 읽기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본고는 오랫동안 『무소의 뿔』의 한계이자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일면으로서 지적되어 온 여성 인물들의 '모순성'을 개인적 도덕과 여성적 도덕을 오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봉건성'과 '의존성'을 극복하려 시도하며 발생한 균열로서 재해석한다. 이를 위해 작품의 세 여성 인물인 혜완, 경혜, 영선 중, 결혼 생활로 극에 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 이혼과 자살이라는 대비적 선택을 하는 혜완과 영선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들의 선택은 '모욕'당하지 않는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한 분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모순성의 등장은 오히려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혜완과 영선에게 각각 '수치와 무모함', 그리고 '절망과 교활함'으로 나타나는 이 모순성을 양분된 도덕성이란 틀을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작가 공지영이 의도한 "진실"로서의 여성들의 '현실'을 포착하고 『무소의 뿔』이 페미니즘 소설로서의 의의를 되찾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대한 재고와 여성적 도덕성

본고는 서론에서 제출한 『무소의 뿔』에 대한 90년대 비평의 읽기 방식이 이 작품을 기본적으로 여성 성장담으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발생하였

다고 진단한다.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은 유사한 지위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고, 그러한 이유로 언제나 자신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성장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무소의 뿔』의 경우에는 여성의 오랜 봉건성에 기반을 둔 의존성이 그 극복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해당 맥락에서 잠시 앞서 논한 바 있는 이경덕의 글을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겠다. 이경덕은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한 여성이 충분한 능력과 여건이 주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로 해석했다.[15]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은 '중산층의 지식인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능력과 여건"을 갖춘 여성이란 조건에 자동적으로 부합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무소의 뿔』의 세 여성 인물인 혜완, 경혜, 영선은 중산층의 지식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에서 실상 '그 계급과 지위'로만 논의되곤 한다는 사실을 먼저 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들이 이미 독립적이기 위한 기반으로서 충분한 사회/경제적 재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젠더의 불평등성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의존성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개인의 심리 이외의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성이 그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이해되기 힘들 뿐더러, 그러한 극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장이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작품이 미완의 서사라는 해석에 일조하게 만든다.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이 지닌 모순성에 대한 분석에서 사실상 괄호 쳐져 있던 젠더적 관점을 더욱

15) "남성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습관에서 일거에 자유로울 수 없고, 여성들 또한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의존적 사고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지 않는다. 그러한 여성의 의존적 사고방식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명명되고 문제가 된 것은 미국에서 자유주의적 여성해방운동이 지배하던 60년대에 뒤이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하던 70년대에 사회적 독립과 성공을 가로막는 여성심리를 극복하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는 한 여성이 충분한 능력과 여건이 주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백마탄 왕자'에게 의존하려는 의식이다." (이경덕, 앞의 글, 373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읽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고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충분한 조건'을 갖춘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이 드러내는 의존적이고 봉건적인 태도의 모순성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구조화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한 개인적 도덕이 실제 현실에서 요구되는 여성적 도덕인 정형화된 '여성다움'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심리 상태로 읽어낸다. 이 두 도덕 가치는 작중 여성 인물들이 "충분한 능력과 여건"을 지녔기 때문에, 즉 그들이 개인적 도덕 가치를 충분히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부딪힌다.

본고는 남성적 도덕이라 칭해질 수 있는 기존의 개인적 도덕과 여성적 도덕의 차이를 제시하는 캐럴 길리건의 논의를 경유하여, 작품 속에서 "이중적이고 위선적"[16]으로 나타나는 여성 인물들의 모순적 태도를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여성적 도덕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길리건의 논의는 여성이 가진 도덕성에 대한 인지가 '여성'이라는 젠더적 조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그들이 도덕적 갈등을 겪거나 침묵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데에 적합한 관점을 제시한다.

다양한 여성들의 사례 분석으로 이루어진 길리건의 대표작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17]는 '대학생 연구', '임신 중절 결정 연구', '권리와 책임 연구'를 거쳐서 프로이트 및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심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성의 도덕성과 그에 관련된 심리 발달에 대해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성숙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별되지만, 여성의 도덕성은 기실 "그들이 얼마나 남들을 잘 보살피고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개인적 도덕성과 여성적 도덕성[18]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전자는 대부분 이기적

16) 정영자, 앞의 글, 373면.

17) 캐럴 길리건, 허란주 역, 『다른 목소리로』, 동녘, 1997.

18) 길리건의 연구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돌봄 윤리를 여성의 도덕으로 일반화하는 것의 타

인 태도로 인식되며 오히려 여성이 받는 도덕적 평가에 반하기에, 다수의 여성은 후자를 우선시한다.

> 사회는 공적으로 여성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여성들은 사적으로 아직까지도 스스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율적인 선택이 여성다움에 대한 기존 관념, 특히 여성은 착해야 하고, 착한 여성은 자기희생적인 여성이라는 도덕적 등식에 대립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갈등을 느끼기 때문이다.[19]

현대 사회의 여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외부적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적 선택이 부여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위의 인용이 설명하고 있듯이, 여성의 "자율적인 선택"은 기존의 여성다움에 대한 관념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기에 그 '선택'이란 결국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 더욱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여성들의 선택권은

당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돌봄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어 왔던 규범임을 고려한다면,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도덕이 오히려 여성의 종속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리건은 앞서 제시한 비판이 작업의 논점을 비껴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라 지적하며, 이의 작업이 자아와 도덕성을 구성하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환기시키는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즉 길리건의 논의는 또한 돌봄 자체가 지닌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상은 조주영,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도덕 윤리로서의 보살핌」, 『여/성이론』 제21호, 도서출판여이연, 2009, 79면을 참고하여 작성.)

본고는 위와 같은 길리건의 반박을 인정하는 한편, 여성적 도덕이란 한 여성이 능동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그러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에 기반하고 있을 때 비로소 길리건이 제시한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화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길리건은 '임신중절 결정'을 고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적 도덕은 위의 문제제기와 같이 여성의 억압적 상황을 지속하는 데에 일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글의 본문에서 언급되는 여성적 도덕도 대개 이러한 여성 억압적 맥락에서 제출되고 있다. 『무소의 뿔』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로서 획득되는 여성적 도덕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4장 후반부에서 논의한다.

19) 캐럴 길리건, 앞의 책, 146면.

‘여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책임’을 여성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게 하여, 여성 내부의 도덕적 갈등을 각 개인의 영역에 국한시킨다. 『무소의 뿔』에 대한 주된 비판 중 하나인 ‘여성 내부의 봉건성’ 역시 작중 여성 인물들이 여성적 도덕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총체적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봉건적 여성’의 태도는 자주 여성적 도덕성과 일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사회 탓이 아니라 여자들의 생각이 남자들보다 더 봉건적인 것 같아요. 그 아가씨도 그렇고, 조금은 그런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
> “지금은 오히려 약간은 봉건적인 게 여자들한테 유리해서 그래요. 여자들이 스스로 봉건적이라기보다는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263)

장 감독은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젊은 여성과 외도하는 자신을 목격한 혜완에게 일부일처제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도리어 혜완과 마주친 후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젊은 여성을 비판한다. 그러자 혜완은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의 봉건성이 여성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한다. 혜완의 발화는 여성 스스로 여성적 도덕을 따르게 하는 봉건성이 여성이 어떤 일로부터 비난받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을 하나의 방안이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장 감독이 남성들이 덜 봉건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성에게 부과되는 도덕이 자신의 선에 의해 좌우되는 개인적 도덕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에게는 남성 중심적으로 설계된 개인적 도덕과 타인에 대한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적 도덕이 함께 요구되고, 다수의 여성은 외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장 감독이 말한 것과 같이 ‘봉건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취한다. 이는 대신 여성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외부자에게 모순적인 태도로 읽히게 된다.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점인 '의존적' 측면의 경우, 이와 같은 여성적 도덕이 길러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길리건에 따르면 한 사람의 도덕성 발달은 청년기에 정립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이에 개입한다.[20]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성별적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독립'이 중요시되는데 반해, 여성은 이러한 과정이 요청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정체감 형성에 위협을 느낀다. 그러나 청년기의 발달 기준은 남성 정체성 수립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성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밀성에 집중하는 여성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독립'과 발달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길리건은 개인적 도덕성과 구분되는 여성적 도덕성의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도덕적 성숙을 판별하는 기준 자체에 근원적 의문을 제기한다.

주지하다시피 『무소의 뿔』에 대한 주요 비판 역시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 인물의 '의존' 여부와 '성장'을 논한다. 그러나 '독립성'을 중점으로 둔 개인적 도덕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관계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성의 태도는 막연한 '의존성'이라는 단편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본고는 위에서 제출한 길리건의 논의에 동의를 표하며, 해당 작품의 여성 인물을 분석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의존'과 '독립'의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일견 '봉건적'이고 '의존적'으로만 비춰지는 이 작품의 여성 인물들의 태도들은 남성 지배 사회가 구축한 도덕적 범주 내에서 갈등을 해결해보려 하는 여성들에게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개인적 도덕과 타인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여성적 도덕

20) 위의 책, 52면.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한 내적 갈등으로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과 분리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성적 도덕성이 그러한 분투의 과정을 거쳐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것[21]으로서 도달됨을 고려한다면,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순성은 도덕적 성숙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적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3. '모욕'당한 여성의 생존 방편으로서의 모순성

『무소의 뿔』 속 여성 인물들의 모순적 태도는 그들의 '생존' 문제와 관련된다. 이때 여성의 '생존'이란 물리적인 의미뿐 아니라, '모욕'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인격적 존중을 포함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로 '모욕감'과 '억울함'을 꼽고 있는 김미지는 모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모욕은 '억울함'의 감정을 불러오고, 이는 "내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나 자신에게 결국 책임이 돌아온다는 경험이 주는 무력감과 절망감의 다른 이름"이라고 서술한다.[22] 남성 지배 사회의 여성적 도덕에 순응하는 일은 여성의 물리적인 '생존'을 용이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 여성들에게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끈질긴 무력감 절망감을

21) 길리건은 여성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돌봄 윤리가 세 단계로 나뉘며, "일방적 희생과 착취로 귀결되지 않는 발달 경로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여성은 인간관계가 상호적으로 작동하며, "자아와 타자는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하나만을 돌보는 것은 다른 하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은 자기 자신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의식을 가진 상태로 나아간다. (김은희, 「콜버그의 정의 윤리와 길리건의 돌봄 윤리 논쟁에 대한 한 해석: 성차 논쟁을 넘어서」, 『철학연구』 제109집, 철학연구회, 2015, 60-61면.)

22) 김미지, 앞의 글, 21면.

학습시키며, 타인과 동등한 한 사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으로서의 '생존'은 어렵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자신들을 "모욕적인 일 같은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었던", "20세기 후반에 지성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33)으로 자부하는 이 소설의 여성 인물들에게, 끝없는 '모욕'을 견뎌야 하는 일은 지속적인 '생존'의 한 방식이 될 수 없다. 『무소의 뿔』 속 여성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생존'이란, '모욕'당하지 않는 삶이다.

본고에서는 『무소의 뿔』에서 이 '생존'의 양가적 측면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는 두 인물 영선과 혜완, 그리고 그들의 자살과 이혼이라는 선택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3] 이 장에서 분석할 영선의 절망과 '교활함', 그리고 혜완의 수치와 '무모함'에서 드러나는 여성 인물들의 모순성은 그 도덕적 경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성의 서로 다른 '생존' 방편이다. 영선의 경우 남성 지배 사회에 의해 강요 여성적 도덕을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최대한 가시화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모욕'을 마주하지 않는 것은 여성적 도덕의 충실한 이행, 혹은 그것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일로서만 가능해질 텐데, 여성적 도덕의 수행이 현실에서 더 쉽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선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자신을 여성적 도덕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그 '교활함'은 두 도덕성 어디에도 영선을 위치시키지 못하며 그녀를 절망에 빠뜨린다.

혜완은 영선과 달리 갈등을 계속해서 가시화하고, 결과야 어떻든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식을 택하는 쪽이다. 이는 작품 속에서 '무모함'이라 칭해지는 혜완의 성격과 관련되며, 그 '무모함'으로 발생된 일들로 타인의

23) 『무소의 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 인물인 경혜는 남편과 불화를 겪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 변죽 좋은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간다. 이러한 삶 속에서 경혜의 이름과 희생적 면모는 드러나지 않게 되며, 그녀는 오히려 돈과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남편의 부정을 감내하는 '속물'이라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인물이 된다. 이 '속물' 근성은 영선과 혜완의 선택 중간 즈음에 자리할 만한 것으로, '교활'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도, 또한 지나치게 '무모'해지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경혜만의 독특한 특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혜에게서는 영선이나 혜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명한 모순적 태도가 덜 포착되는 편이다.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 '무모함'은 여성적 도덕에 대립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도덕에 더 가깝겠지만, 혜완이 지속적으로 비난받게 만드는 기제로 장치화된다는 점에서, 수치를 불러오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모함'은 또한 그녀가 다시 한 번 그것을 견뎌대는 힘이 되며 그녀가 자신만의 도덕을 구축해나갈 바탕이 되어준다. 혜완은 자신을 "세상의 일부"(365)로 칭하고, 자신의 '봉건성'과 '의존성'을 곧 세상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자기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이를 타개해 나간다. 혜완은 '무모함'의 힘으로 두 도덕적 경계를 왕래하며 '생존'을 유지한다.

1) 여성을 다시 한 번 절망시키는 '교활함

영선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인 박 감독이 성공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며, 『무소의 뿔』에서 여성적 도덕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인물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난 영선이 부푼 꿈을 안고 당도한 곳에서 마주한 것은, '꿈의 실현'이 아닌 '꿈의 현실'이었다. 현실의 영선은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쓴 작품을 그의 이름으로 내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강요되는 여성적 도덕에 침식되어 영선은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경혜와 혜완 앞에서 자신을 남편의 '하녀'에 비유한다.

> "...결혼 생활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없었어. 난 한때는 글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하고 꽤 칭찬도 받았던 괜찮은 여학생이었는데... 그 남자의 학비가 없으면 나는 어느덧 그 남자의 학비가 되고, 그의 배가 고프면 나는 그 남자의 밥상이 되고, 그 남자의 커피랑 재떨이가 되고, 아이들의 젖이 되고, 빨래가 되고... 그 남자가 입을 여는 동안 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었어. 나는 목욕탕 앞의 발닦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가도록

내버려두었어.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말야, 난 누구보다 내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여자라고 누가 물었다면 맹세라도 했었을 거야. 우습지 않니?" (152-153)

자조 섞인 영선의 말에는 과거 그녀에게 단일한 선택지로 주어졌던 개인적 도덕과 이제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여성적 도덕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난다. "한때"라고 표현하며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는 말들이 그녀의 개인적 도덕이라면, "발닦개처럼" 되도록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그녀에게 부과된 여성적 도덕이다. 꽤 "괜찮은 여학생"일 수 있었던 영선의 모습은 결혼이라는 관습을 통과하기 전 여성의 형상이다. 이 지점에서 영선을 비롯한 이 작품의 여성 인물들이 중산층의 '지식인' 여성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여성됨'은 '여성적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결혼 전까지 이들의 규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산층의 지식인'과 '여성'이란 정체성은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24] 그들은 큰 무리 없이 개인적 도덕, 즉 자신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에 익숙했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장면의 모순은 기실 영선이 자기 자신이 부재한 타인을 위한 희생적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보고자 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영선의 현재 모습은, 자기 엄마의 모습에서 환멸을 느끼고 여성해방 잡지를 만들던 "괜찮은 여학생"의 기준에서 본다면

24) "아마도 그들은 오전엔 여성 문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멀리 떨어진 햇빛도 찬란한 섬으로 데려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은밀히 숨기고 있던, 그러면서도 그것이 결코 모순된다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소녀들이었는지도 몰랐다." (108)

작품 속에 나타난 이와 같은 서술은 그들이 사실 남성 지배 사회에서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주어지는 차별적인 역할과 기대에 완전히 무지하지는 않았음을 일부 드러낸다. 그러나 "결코 모순된다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말은, 이들이 '여성해방'을 외치면서도 기실 그 은밀한 '기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성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추측케 한다.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선이 지금의 자신을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 내보이는 위선적 태도가 아니다. 결혼 후 그녀가 습득한 여성적 도덕, 즉 타인에 대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관에서 기꺼이 타인을 위한 돌봄 행위를 수행해나가는 영선의 삶은 도덕적 체계의 상위에 자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선을 편리하게 여성적 도덕에만 안주할 수는 없게 하는 또 다른 요구에서 발생한다. 영선이 쓴 시나리오로 성공한 감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은 그동안 그를 위해 쏟아온 영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꿋꿋한 여자야.”(379)라고 말하며, 그녀가 남성 중심의 개인적 도덕성을 동시에 수행해 낼 것을 바란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의 발화로 대변되는 외부자의 시선은, 관습화된 여성의 성역할과 여성적 도덕과 무관하게, 여성에게 ‘꿋꿋한’[25] 개인적 도덕 역시 요청되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결국 그녀는 다시금 개인과 여성적 도덕의 경계로 밀려나고, 그 무게에 지쳐가다 끝내 자살을 시도한다. 아내와 어머니의 이름만 남은 “엄마처럼 되지 않”고 “여자답게[26] 살고 싶었던”(163) 자신의 꿈을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남편의 외도를 감내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엄마’의 삶을 닮아

25) 이 소설에서는 여성을 묘사하는 수식어로 ‘꿋꿋함’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꿋꿋함’은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이 여성적 도덕에 매몰되지 않은, 자신만만하고 독립적이던 그들의 과거 태도를 묘사하는 단어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영선의 남편 박 감독과 혜완의 애인이었던 선우의 발화인데, 선우 역시 혜완에게 “내가 사랑했던 씩씩하고 꿋꿋했던 서혜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주눅이 든 채로 내게 기대기 시작했어.”(359)라고 말하며, 외부의 비난으로 인해 개인적 도덕과 여성적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는 혜완을 여느 외부자와 똑같은 시선에서 비판한다.

26) 이때 ‘여자답다’는 것은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돌봄을 우선시하는 여성적 도덕의 ‘여성다움’과는 구분된다.

가는 것, '여자다움'을 빼앗기는 것은 영선에게는 특히나 '모욕'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살 시도 후 영선은 이제 두 도덕적 세계 어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하다가, 그 균열의 절망 속에 잠겨 마침내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교활함'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1) "어느 날 니가 이혼을 하겠다고 내게 말했지. 니 일을 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할게. 그땐 질투가 났었어. 니가 밉기도 했지. 참고 살지. 다들 참고 사는데 서혜완 너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또 이렇게도 말하고도 싶었어. 나도 하고 싶어 혜완아. 하지만 니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 (...) 미안해 너는 초라해 보였어." (383)

2) "니(혜완-인용자) 말대로 내가 얼마나 나의 교활함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죽으려고 했었던 거라고 말이야." (389)

영선은 이혼하는 혜완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이혼하고 싶었던 마음을 혜완에게 이야기한다. 이혼한 혜완을 '초라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영선 자신 역시 이혼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은 영선이 자발적으로 여성적 도덕 체계를 우위에 두고 결혼 후 그녀의 삶을 이끌어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인적 도덕과 여성적 도덕 사이에서 번민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선 자신 또한 이를 모르지 않으며, 모순적인 자기 자신의 태도에 "진저리"친다.

한편, 두 사람이 나누던 이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영선이 자기 자신의 '교활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은 그녀의 모순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영선의 이 발화는 그녀가 스스로 '교활함'이라 칭한 그녀의 민낯에 대한 혜완의 비판[27]을 인정하며 나온 대답이다. 착한

27) "넌 누구보다 교활했던 거야. 이 세상에서 여자 혼자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남편

남편을 죽인 미친 부인이 되기보다는 남편이 죽게 만든 착한 부인이 되기 위한 복수로서 자살을 시도했다던 영선은, 「누추한 선택」이라 명명된 소설의 후반부 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을 똑바로 마주한 모습을 혜완에게 고백한다. 그러나 두 도덕적 경계를 오가는 '초라함'도, 한 쪽만을 택하는 '교활함'도 끝내 불가능했던 영선의 두 번째 자살 시도는, 그저 시도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 도덕을 선취하는 데에 실패하면서 발생한 절망을 '교활함'으로 포장하려 했던 영선은, 그 '교활함'이 불러온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영영 침잠해버린다.

2) 여성에게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무모함'

영선이 '초라함'이라 칭한 혜완의 모습은 그녀가 가진 '무모함'에서 비롯되며, 서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기되는 것 중 하나도 바로 혜완의 '무모함'이다. 혜완의 '무모함'은 소설 초반 경혜가 손익을 따지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혜완을 '용감하고 무모'하다고 평가하는 데서 처음 언급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의 앞뒤를 재지 않고 일단 나아가는 혜완의 결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자주 나타난다. 혜완 역시 어떤 면에서 자신은 확실히 '무모하다'고 인정하는데, 그러한 '무모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그녀의 이혼이다. 이 '무모함'은 비록 누군가에겐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본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박차고 이혼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결혼이란 선택 이후 수치로 가득 찬 혜완의 삶에서 그녀 나름의 '생존' 방편이 된다.

을 밀어주면서 남편을 방패삼아서 남편을 출세시켜서 니 자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칭찬 받으리라는 걸 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알겠니? 넌 교활했어!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이 직장에 앉아서 아이의 유치원 소풍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같이 아파하고 있어. 친구의 눈에 팔자가 드세고 청승스레 보여 가면서 그래도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어." (388)

> 용감하다는 말은 좀 그랬지만 무모하다는 말은 맞았다. 무모했다. 쥐꼬리만 한 위자료를 들고 셋방을 찾아다니고 잘 살아볼 거라고, 남편은 싫어하고 혜완은 좋아했던,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거의 끓여 먹지 않았던 육개장을 한 냄비 끓여서는 1주일 동안 그것만 먹다가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면에서 혜완은 확실히 무모했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 언제나 자신 있게 행선지를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함께 택시를 탔을 때 남자가 말을 하기 전에 여자가 먼저 행선지를 말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다. 마치 자신이 바보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행선지를 밝힐 때마다 혜완은 무언가 새로운 자신감이 솟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 하찮은 일에서 자신감을 느끼다니 그것 또한 무모하다면 무모한 일이었다. (67-68)

혜완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결혼생활 동안 할 수 없던 일들을 실천한다. 물론 혜완도 그런 '무모함'을 추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혜의 집 욕실에서 문득 "안정되고 싶다"(59)는 어떤 욕구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욕구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욕구를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돌봄이 여전히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닌 오직 "그녀에게만 강요된 일"이라는 점에서, 혜완에게는 여전히 '견딜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아들을 낳은 후, 혜완 역시 영선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도덕과 여성적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남편과 불화를 겪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혜완의 이혼 계기가 된 어린 아들의 죽음 또한 그녀의 '무모함'에 빚지고 있다. 혜완은 그녀가 이토록 무모하지 않았더라면, 즉 그녀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근하기 위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 비난받는다.

이렇듯 세 여성 인물들 중 유일하게 이혼을 실천에 옮기게 한 혜완의

‘무모함’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견고한 토대인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원인이며, 혜완을 아들을 죽게 만든 ‘죄인’으로 부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의 ‘의존성’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여성이 겪어내야 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한 여성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혜완의 ‘무모함’이 가져온 결단력이 이혼을 가능하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게 한다. 이렇듯 여성적 도덕에 충실하지 못했던/못한 혜완을 향한 지속적인 외부의 억압과 비난은, 이혼 후에도 혜완 스스로 이 ‘무모함’에 대해 후회하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그녀가 모순된 심리 상태를 노출하게 한다. 이러한 혜완의 심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이 혜완의 애인인 선우의 누나와 만난 직후이다.

>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선우도 아니고 모란꽃같이 화사하던 그의 누이도 아니었다. 그녀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그의 누이 앞에서 수치스러워하던 자신이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길 한 번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던 자신이었다.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면 선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그 아무것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 (225)

선우의 누나는 약속도 없이 혜완을 찾아와 혜완이 이혼녀이기에 선우와 혜완의 결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상기하고 돌아간다. 혜완은 선우와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감추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수치를 느끼며 이혼에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다. 혜완의 수치는 자신의 어린 아들과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 즉 여성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충분히 자신을 헌신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사회적 기대와 달리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 도덕을 상위에 두지 않는 혜완의 가치관은 비난받고, 여성 자신에

게 수치를 일으켜야 마땅한 것인 셈이다. 영선에게는 당당한 태도로 '교활하다'면서 훈계를 늘어놓는 혜완이지만,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여성으로서의 가치관이 지적되었을 때, 그녀 역시 그 당당함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완의 '무모함'이 가진 문제성은 여전히 혜완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거스르는 추동력이다. 이 '무모함'이야말로 작품 속 다른 여성 인물들과 다르게 혜완이 이혼을 실행에 옮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로써 결국 외부의 차가운 시선을 받더라도 다시 일어나 싸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혜완이 아버지에게 아이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단지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 생각했다고 털어놓는 장면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28] 그녀는 "서혜완이라는 인간이면서 일을 가진 헌이의 떳떳한 엄마이고 싶었다"(317)고 말하며, 왜 자신이 "죄인"인지 묻는다. 혜완의 고백 아닌 고백이 지닌 '무모함'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318)는 자신의 친아버지에게조차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여성적 도덕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상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개인적 도덕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억압적인 도덕성의 기준에 균열을 내는 하나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4. '함께' 가기 위한 홀로서기

『무소의 뿔』의 서사적 결함으로 자주 문제시되는 지점 중 하나는 이

28) "나는 그런 시달림에 쫓기고 있었어요. 직장엘 나갔지만 늘 아이가 내 등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어요. 불안했고 불안했어요. (...) 하지만 나는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서혜완이라는 인간이면서 일을 가진 헌이의 떳떳한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헌이가 죽은 거에요. (...) 왜 내가 죄인인가요 아버지." (317)

작품의 결말이 결국 세상으로부터 괴리된 여성의 독립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영자는 '화해'가 아닌 여성들만의 '독립'으로 맺어지는 결말을 이 소설의 가장 큰 결함으로 꼽으며, 작품 속 선우의 말처럼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껴주며 '함께' 걸어가야 함을 강조한다.[29] 최정호의 경우, 작품의 결말이 남성을 믿을 수 없게 된 혜완이 "더 이상 남성과의 진지한 관계(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지하고 진정한 관계에 대한 요청)는 포기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려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30] 요컨대, 이들은 『무소의 뿔』의 결말에서 이루어지는 영선의 죽음과 그를 마주한 혜완이 보여주는 태도가 여성이 끝내 남성과의 관계를 포기한 채 홀로 자기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시각이 『무소의 뿔』의 결말에 대한 주된 해석이 되어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무소의 뿔』 분석의 주류적 흐름을 만들어낸 이경덕의 글은 오히려 『무소의 뿔』이 결말에서 "남성들의 태도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한다.[31] 본고는 이와 같은 지적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한편, 이를 "유보적 태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긍정적인 '멈춤'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무소의 뿔』의 결말을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결별하는 방식의 '독립' 선언에서 나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화해'를 위해 여성이 자신이 넘어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진정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문예지는 『무소의 뿔』의 서사가 한 여성이 자신과 다른 여성들의 "아픔을 마주하는 과정을 그리면서도, 그러한 고통과 좌절이 희망이나 연대의 가능성으로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끝까지 고수한다"고 지적

29) 정영자, 앞의 글, 373-374면.

30) 최정호, 「공지영 페미니즘 소설 연구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9면.

31) 이경덕, 앞의 글, 377면.

한다.[32]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짚고 있는 것은 그간 여성들이 겪어온 고난과 고통을 일거에 소거하는 '손쉬운 화해'의 불가능성이지, '화해' 그 자체의 불가능성은 아닐 것이다. 이 작품의 결말을 읽어내는 데에 있어 이 둘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3장 끝에서 간략히 언급한 영선과 혜완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 요청하는 '이해'는, 여성이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괴리와 단절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 "……난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니가 헌이를 죽인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또 아이가 가지고 싶단 말이니?"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노여움이 배어 있었다. 어미로서 제 임무를 방관한 딸에게 아니 이전의 여자에게 보내는 준엄한 질책 같았다. 혜완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죄를 고백하는 듯, 눈물 고인 딸의 눈에 그러나 연민을 보내지는 않았다. (...) 혜완은 마치 반항하는 여학생처럼 말했다. 아버지가 이 세상 남자들을 대표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이라도 한 것처럼 혜완의 어조는 강렬했다. 이해받고 싶었다면 언니들이라든가 그도 아니면 어머니에게 꺼내야 좋을 말이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318)

다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아버지를 향한 혜완의 고백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남성이자 여전히 "연민"보다도 "질책"을 보내는 남성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을 "이해받고자" 하는 과정이다. 그녀가 가족 구성원 중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더욱 남성 전체를 향한 상징적 발화로 읽히게 한다. 특히 자살을 선택한 영선과 달리, 아이를 잃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이를 갖길 원하는 혜완의 욕망은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양육의 체험을 다시 한 번 기꺼이 감내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32) 문예지, 앞의 글, 248면.

의지라는 점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자신에게 큰 고통을 준 남성 지배 사회의 구태의연함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보려는, 혜완의 지독히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무소의 뿔』의 주요 서사를 구축하는 혜완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 작품의 결말이 위에서 제출한 평가들처럼 결코 남성에게 등을 돌리고 이루어지는 여성의 독립으로 향하고 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영선의 장례식에서 "내내 모든 죄를 혼자서 짊어지기로 한 사람처럼 괴로워" 보이는 박 감독을 보면서도, "그것이 모두 그의 죄라고는"(406) 생각하지 않는 혜완의 모습 또한 남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나 화해하지 않으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위의 대화들에서 박 감독을 바라보는 혜완의 시선은 도리어 여성의 문제가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거나, 세상과 괴리된 채로 여성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는 '무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치를 느끼는 혜완의 모순적 태도를 비판하는 선우를 향해 혜완이 "내가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365)이라고 반박하는 것과 연결된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기에, 다른 이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독립'이란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에 이 작품의 결말에 혜완의 "홀로 서야 했다", 혹은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408)라는 식의 발언은 단지 친구의 죽음으로 절정에 달한 실망과 절망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나 여성의 고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혜완을 통해 보여지 듯 한 사람의 홀로서기란 결국 다른 이와의 엮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하여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혜완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혜완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사람임을 확인시켜준다. 한 사람의 '성장'을 "개인의 사회성과 표현의 자율적인 형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기형성의 과정"[33]이라 할 때, 혜완은 이제 진정으로 자기

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헤쳐 나갈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의 실천이 곧 이 소설에서 자주 회자되고 하는 “누군가와 더불어 행복해지고 싶었다면 그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408)라는 발언의 의미와 함께 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발을 내딛는 혜완의 새로운 삶은 그 누구도 아닌 ‘서혜완’이라는, 중산층의 지식인이면서도 여전히 한 ‘여성’인 그녀를 구성하는 여러 정체성들이 충분히 교차하는 자리에서 자기만의 도덕성을 찾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 이렇듯 여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변화는 여성들의 도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타인을 보살피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보살피는 것도 도덕의 영역에 포함됨을 여성들이 깨달으면서 자비의 개념은 정의 개념과 결합된다. (...)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여성들은 도덕적 사고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34]

현실의 많은 여성들이 이 작품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남을 돌보는 데에 시간을 쏟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홀대하는 데에 익숙해진다. 그러나 한 명의 돌봄인으로서 그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존중을 획득하지 못할 때, 여성들의 존재는 점차 무너져 내린다. ‘무모’하지만,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결단력 있고 성숙한 판단을 보여줬던 혜완 역시 끊임없이 누군가를 붙들고 기대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하지만 이는 단지 독립성의 부족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여러 돌봄 논의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독립적’ 개인이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허상이며, 한 사람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대어 있기 때문이다.

---

33)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 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8면.

34) 캐럴 길리건, 앞의 책, 267면.

『무소의 뿔』의 여성 인물들이 이뤄내는 서사는 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적 도덕 역시 그들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그것이 그들을 오랜 시간 갈등 속으로 밀어 넣은 것임을 말해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포함한 도덕적 사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서사는 그러한 새로운 도덕적 가치관의 출발점에서 그들을 타자화한 남성들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는다. 『무소의 뿔』의 혜완이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를 하는 것, 절에서 내려가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본고는 이것이 오랫동안 '페미니즘'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페미니즘' 작품이라 불려온 이 소설의 결말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판단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우선하며, '나'를 억압하는 타자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나아가는 것. 그것이 훗날 타인과 '함께' 가기 위해 '여성'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여성은 타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위로하고 위안 받을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공지영의『무소의 뿔』속 여성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순적 태도의 심리를 고찰했다.『무소의 뿔』에 등장하는 혜완, 경혜, 영선 중, 이혼을 선택하는 혜완과 결혼 대신 끝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자살하는 영선이 특히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인물의 심리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그간 해당 작품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성의 '의존성' 혹은 여성 내부의 '봉건성'이 여성의 부족한 자립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도덕과 여성적 도덕으로 양분된 도덕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현실'에서 포착되는 문제들이 해소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들의 의존성 또는 낮은 독립 의지의 극복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이중 잣대를 부과하고 편향적인 '독립'과 '발달'의 기준을 제시하는 남성 지배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무소의 뿔』은 당대 평가와는 달리 단순히 여성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소설은 여성들이 그러한 경계에서 각각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여성 해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며,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이름 앞에서 남성과 '화해'라는 안일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결코 여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90년대를 여성작가의 부상이나 여성문학의 가시화와 같은 흐름으로 읽어내는 것은 오늘날 낯설지 않은 접근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문학장에서 더 이상 여성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여성문학의 약진'과 같이 지칭하지 않는다는 한경희의 지적[35]은, 기실 9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 작가들에 의한 여성문학의 '분명한' 성취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서영인이 말한 바와 같이 90년대 문학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되는 "여성문학의 부각"이 곧 "여성문학의 존재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가치부여하는가의 문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지는 않는다.[36] 어떤 작품이 '페미니즘 문학'으로 불린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페미니즘' 문학인가 하는 것이다. 90년대에 등장한 이 물음은 여전히 오늘의 문학장 안에 머물며, 9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재의미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응답의 한 형태이다.

35)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 - 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제83호, 현대소설학회, 2021, 43-44면.

36)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12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공지영,『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제4판, 해냄, 1993.

_____,『상처 없는 영혼』, 푸른숲, 1996.

2. 단행본

캐럴 길리건, 허란주 역,『다른 목소리로』, 동녘, 1997.

콜레트 다울링, 이호민 역,『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2002.

3. 논문 및 기타

김미지,「『82년생 김지영』(2016)과 겹쳐 읽은『한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 - 페미니즘과 소설의 전략」,『현대소설연구』제85호, 현대소설학회, 2022, 5-35면.

김은하,「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 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여성문학연구』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3-78면.

김은희,「콜버그의 정의 윤리와 길리건의 돌봄 윤리 논쟁에 대한 한 해석: 성차 논쟁을 넘어서」,『철학연구』제109집, 철학연구회, 2015, 51-85면.

김평・류은영,「신데렐라 서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신데렐라 콤플렉스까지」,『프랑스학연구 』제75호, 프랑스학회, 2016, 87-115면.

문예지,「30대 페미니스트 서사에서 세대의 교차와 분화 읽기 – 공지영의『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를 중심으로」,『한국현대문학연구』제65집, 한국현대문학회, 2021, 221-257면.

박철화,「여성성의 글쓰기, 대화와 성숙으로-공지영, 은희경, 신경숙의 경우」,『작가세계』제42호, 작가세계, 1999, 103-118면.

서영인,「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대중서사연구』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9-40면.

서은경,「공지영론-스러진 역사의 꿈, 그 속에서 피어난 삶의 진실」,『돈암어문학』제13호, 돈암어문학회, 2000,167-184면.

송명희,「한국 문학과 페미니즘」,『라쁠륨』제1권 1호, 문화공간, 1996, 342-354면.

양혜원,「여성 경험의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를 중심으로」,『한국학』제44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313-348면.

연용순,「『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의 의식 고찰」,『順天鄕

語文論集』 제7권, 順天鄕語文學硏究會, 2001, 247-269면.
이경덕, 「여성문제의 인식과 소설적 형상화 - 안재성, 공지영, 이경자, 양귀자의 최근 소설들」, 『실천문학』 제33호, 실천문학사, 1993, 365-387면.
임진영, 「80년대를 보는 90년대 여성 작가의 눈 – 공선옥과 공지영」, 『실천문학』 제41호, 실천문학사, 1996, 233-250면.
정영자, 「90년대 여성소설의 특성 연구 – 양귀자, 공지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15권, 한국비평문학회, 2001, 333-398면.
조주영,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도덕 윤리로서의 보살핌」, 『여/성이론』 제21호, 도서출판여이연, 2009, 72-84면.
최가은, 「90년대 여성문학의 곤란한 '대중성' - 공지영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43-374면.
최정호, 「공지영 페미니즘 소설 연구 -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 – 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제83호, 현대소설학회, 2021, 39-85면.
허주영, 「1990년대 페미니즘의 대중화, 그 직전의 풍경: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1992)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8권, 민족문학사학회, 2022, 171-205면.

<Abstract>

A Psychological Study on the Contradictions of Female Characters in Ji-Young Gong's *Go Alone Like a Rhino's Horn*(1993)

Kim, Mi-La

This paper focuses on reinterpreting the 'feudalism' and 'dependency' of female characters—which has been understood as the 'Cinderella complex'—in *Go Alone Like a Rhino's Horn*(1993) by the ambivalent moral value system imposed on women. The 'Cinderella Complex' was submitted as an explanation for the contradictory attitudes of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novel, who are 'middle-class intellectual women' with 'sufficient conditions and capabilities,' and it has widely been reproduced in other criticisms and researches. However, this does not take account of the lives given to female characters as wives and mother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that have resulted from those live; in fact it erases the gender from their identities.

Women are advised to achieve both, personal morality that encourages them to make choices as 'independent' individuals, and feminine morality based on 'femininity' in a male-dominated society. The contradictory attitudes found in female characters in *Go Alone Like a Rhino's Horn* appears in the process of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ose two moralities. Their contradictions, captured as despair and 'cunning', and shame and 'recklessness', are a means of survival as a woman to maintain a life without being 'insulted' in a male-dominated society, and also a

mechanism that causes cracks in moral standards and values oppressing women.

Previous studies have seen the contradiction of the female characters in *Go Alone Like a Rhino's Horn* as the limitation of the narrative. Yet, if the gender, which has been excluded, was taken in to account for interpreting the identities of these female characters' identities, their contradiction could be understood as an inevitable event that occurs to women in the process of simultaneously pursuing female morality and personal morality in a androcentric society, and breaks the such boundary. Furthermore, in this respect *Go Alone Like a Rhino's Horn* could be understood as the novel that well-reflected women's reality, and such aspect make it possible to be named as a feminist novel.

Key words: Ji-Young Gong, *Go Alone Like a Rhino's Horn*, feminism, Cinderella complex, patriarchy, dependence, feudalism, contradiction, feminine morality

투 고 일 : 2022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 2022년 12월 26일